



제판에서 톰슨까지 **승명실업(주)**

“패키징 일관생산 체제 구축”

패키징 전문업체인 승명실업(주)(대표이사 한석범)는 최근 톰슨기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승명실업은 제판에서 시작, 인쇄 및 후가공 기기의 전체 생산 라인을 일관화해 구성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제품을 적시에 생산하기 위한 최고의 생산효율성 확보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1년, BYC의 계열사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승명실업은 설립 초기에는 BYC의 물량이 7~8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로 인해 빠른 시간 내에 토대를 다지는 도움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후 거래처 다변화와 기술 개발로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인 외부 거래처 확보로 내부 거래의 비중을 줄여나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외부 거래처의 물량이 7~80%를 차지하게 되었고 연 1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며 패키지업계에서 탄탄한 업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맞춤형 생산 설비 도입으로 시장 요구 앞서 가

업계의 성격이 전형적인 소량다품종에 적합한 생산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패키징 업계에 맞춰 승명실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희수 상무는 결국 고객들의 최종적인 판단은 최종 납기와 인쇄물의 품질에 있다고 보고 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컬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에 충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런 투자는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승명실업에서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환기 장치 등을 생산현장과 격리된 외부공간으로 별도로 빼내어 소음을 크게 줄였으며 작업시간 뿐만 아니라 작업의 수익성까지 기계별로 별도 설치한 컴퓨터에서 오퍼레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해 총 3만 가지에 이르는 상품들의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설비를 잘 구성하는 것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낸 현재의 생산라인 구성을 실현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11월 현재의 위치인 부평공단에 본사를 신축하고 공장을 확장 이전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서희수 상무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던 사옥이 물류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었으나 2149m²에 불과, 늘어나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설비를 증설하는데 제약이 많았으며 7603m²의 넓은 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접착 기계(Folding & Gluing Machine) 1대 증설, 금박기(Foil Stamping & Die Cutting Machine) 1대 증설, 추림반전기(Pile Turner) 2대 증설 등 미뤄왔던 설비확충을 일시에 진행했다. 이후, 2007년 라미네이팅기계와 재단기, CTP 1대를 각각 1대씩 증설한데 이어 지난 3월에 톱슨기 1대를 증설하는 등 매달 2천중에 이르는 소량 다품종의 패키지 인쇄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발전 위해 직원 복지에 많이 투자해

넓은 부지를 확보하면서 추가된 것이 생산설비로 국

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직원들의 편의시설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눈길을 끈다. 기숙사를 비롯, 레스토랑형 직원식당, 영화관 수준의 시청각실,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까지 완비되어 대기업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적잖은 투자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승명실업은 작업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요소이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업무의 집중력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설비의 효율화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생산 관리 전산화로 효율 극대화

승명실업은 기계별로 작업시간, 생산원가, 생산소요시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것으로 최적화된 생산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생산라인에서도 일부 기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하이델베르크의 제품군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라인간의 호환성을 확보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지만 다양하고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서희수 상무는 “생산성을 높이는 솔루션이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주요 설비

하이델 수프라세터 S105

내장 편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확한 편맞춤으로 인쇄 작업 준비 시간 및 손지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하이델베르크에서 직접 개발한 레이저를 장착하고 있어 최상의 이미징 품질과 최고의 생산성을 갖추고 있다. 온도 보정 기능은 수프라세터 레이저의 내부 온도와 드럼의 표면 온도를 안정시켜 레이저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편맞춤이 부정확해 지는 것을 예방한다.

하이델 다이커터 베리매트릭스105

경제적 다이 커팅과 엠보싱이 가능한 다이 커터이다. 품질 및 생산 유연성과 경제성을 갖고 있으며 정확하고 안정적인 급지, 사이드레이의 직접적인 푸쉬와 풀 모드로의 전환, 최소의 작업 준비 시간으로 높은 생산성 유지, 용지의 정확한 안착 등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하이델 2색, 4색, 6색 인쇄기를 도입, 신뢰성 높은 고급 인쇄물 작업도 손쉽게 처리하고 있으며 하이델의 필름출력기, 폴라 추렴기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